

“분양가, 오늘이 제일 싸”... 청약열기 분양가 상승 이어지나

건설 원자재값 급등·인건비 상승·고금리 여파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5개월 연속 상승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이 6배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는 13개 단지, 1334가구(일반분양 기준)가 공급됐다. 청약에 9만198명이 몰려 평균 6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 10.9대 1보다 6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해 1년간 6707가구 공급에 7만3081명

이 신청했다. 청약 수요가 몰린 것은 향후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예상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 상승했다. 1순위 청약에서 468가구 모집에 3만7024명이 신청한 ‘래미안 라그라데’의 올해 초 예상 분양가는 3.3㎡당 3000만~3100만원 선이었는데, 실제 3.3㎡당 3285만원에 공급됐다. 앞서 지난 4월 인근에 공급된 ‘휘경자이디센시아’가 3.3㎡당 2930만원으로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분양가를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내달 공급을 앞둔 ‘이문아이파크자이’ 분양가는 3.3㎡당 350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 전망이 나온

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7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626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1622만원)보다 0.26%, 전년 동월 대비 11.86% 상승한 것이다.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역별로 서울이 3.3㎡당 3193만7500만원으로 3200만원에 육박한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16% 올랐다. 수도권은 2251만원으로, 전월(2259만원) 대비 0.32% 하락했다. 대신 지방이 전월보다 1% 오른 1333만원을 기록했다. 건설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했고, 고금리 여파에 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며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해도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6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19에서 2021년 131, 지난해 146, 올해 151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에 들어가는 건설자재와 노무비, 장비비 등 직접 공사비를 가공한 지표다. 실제 시멘트 공급업체인 쌍용C&E와 성신양화는 7월부터 t당 시멘트 가격을 11만9600원으로 14.1% 인상했다. 지난 1년 전(7만5000원) 대비 59.4% 상승했다. 또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월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전국을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조치와 중도금대출 한도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분양가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영향으로 당분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추이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예정된 물량의 공급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용일기자



제니퍼룸, ‘에어테이블 공기청정기’ 출시

디자인 가전·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제니퍼룸이 브랜드 리뉴얼(새장장) 후 하반기 첫 주력 상품으로 에어테이블 공기청정기를 선보였다. 23일 라엔락에 따르면 제니퍼룸 에어테이블 공기청정기는 CADR 340m³/h로 1시간에 34만L의 부피를 정화해(40.8m³/12평 기준) 동급 대비 높은 의 공기 정화율을 보인다. 하루 종일 마음 놓고 사용해도 한 달 전기료 1130원의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전기세 부담이 적다.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99.95% 이상 걸러내는 프리미엄 헤파(HEPA) 필터에 항균 코팅 기능이 더해진 이중 코팅 필터가 먼

지와 세균을 동시에 정화해 준다. H1N1 바이러스, 대장균 등 99.9% 이상 살균이 검증된다. 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동일한 수준의 25db(데시벨) 저소음을 유지한다. 수면 모드, 타이머, 풍량 조절, 차일드락, 필터 교체 자동 알림 등의 기능도 있다. 제니퍼룸의 전 제품은 공식몰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 제품 1년 무상 보증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국 51곳에 위치한 제니퍼룸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상시 AS(사후서비스)가 가능하다. 오유나기자

이브자리, 호텔식 디자인 침구 출시

이브자리가 가을 웨딩 시즌을 앞두고 호텔식 디자인 침구를 새롭게 선보였다. 23일 이브자리에 따르면 호텔식 침구는 율 화이트 등 단일 색상에 패턴 등을 최소화한 절제된 스타일이 특징이다. 신혼 침실에 고급스러운 맛을 더해준다. 이브자리는 호텔식 침구 수를 확대해 새로운 혼수 트렌드를 집중 겨냥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이브자리는 모노톤 컬러와 디자인 디테일을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다채로운 스타일의 호텔식 침구를 선보였다. 이번엔 출시한 이브자리 호텔식 베딩으로는 아트라인, 플라아 등이 있다. 아트라인은 흰색 바탕에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표현한 그레이 색 액자형 자수 프린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플라아는 그레이와 네이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호텔식 침구다. 색상별 제품에는 각각 포인트로 그레이, 네이비 색

피 자수도 가미됐다. 이브자리는 9월 말까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호텔식 베딩 신제품을 증정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이브자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오유나기자

삼성전자, 세계 최초 듀얼 UHD 게이밍 모니터 공개

삼성전자가 23일부터 27일까지(현지 시간)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3(Gamescom 2023)’에 참가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공개한다.

게임스컴은 약 1100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게임 콘텐츠 제작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게임전시회다. 삼성전자는 752㎡(약 227평)의 역대 최대 규모 전시장을 마련하고 57형 오디세이 Neo G9·오디세이 아크·49형 오디세이 OLED 등 최고 사양의 게이밍 모니터를 대거 선보인다.

◆세계 최초 듀얼 UHD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9’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듀얼 UHD 해상도가 적용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9(G95NC)을 게임스컴에서 선보인다.

오디세이 네오 G9은 57형에 32대9 슈퍼 울트라 와이드 비율, 1000R 곡률, 듀얼 UHD(7680x2160) 해상도를 지원하며, 32형 크기의 UHD(3840x2160) 모니터 두 대를 나란히 붙여 놓은 것 같은 형태로 넓은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HDMI 2.1뿐 아니라 DP 2.1도 탑재돼 PC 연결성도 강화했다. DP(DisplayPort) 2.1은 DP 1.4 대비 약 2배 이상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능하며, 시각적 무손실 압축 DSC(Display Stream Compression) 코덱을 적용해 영상 정보를 왜곡 없이 전송한다.

또 ‘퀵터 미니 LED’와 ‘퀵터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화질을 자랑한다. 기존 제품 대비 40분의 1 크기의 초소형 LED는 밝기와 명암을 더 섬세하게 제어하고 고대역 영역에서의 빛 번짐을 줄여 편안한 게임 화면을 구현한다.

정확한 색과 대비 표현, 최대 1000니트 밝기와 VESA(비디오전자공학표준협회) Display HDR™ 1000 인증을 받았으며, 매트 디스플레이(Matte Display)를 적용해 자연광이나 반사광으로 인한 화질 저하와 눈부심 없이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오디세이 네오 G9은 최대 240Hz의 고주사율과 1ms(0.001초, GTG 기준)의 빠른 응답 속도를 갖춰 강력한 게이밍 퍼포먼스를 지원한다. 화면 지연이나 모션블러 현상을 없애 캐릭터

독일 게임전시회 ‘게임스컴 2023’서 첫선



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하므로 FPS와 같이 화면 전환이 빠르고 동적인 게임에 적합하다.

동작이 빠르고 복잡한 게임 장면에서 끊김이나 이미지 깨짐 현상을 방지하는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AMD FreeSync™ Premium Pro)’ 기술도 적용돼 HDR 환경에서도 더 밝고 생생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두 대의 PC를 연결해 동시에 각 화면을 출력하는 PBP(Picture By Picture) 모드와 화면안에 작은 화면을 띄울 수 있는 PIP(Picture In Picture) 모드를 모두 지원해 게임과 동시에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등 멀티 태스킹이 가능하다.

오디세이 네오 G9은 CES 2023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오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제품 출고가는 280만원이다.

◆한층 더 강화된 기능 ‘오디세이 아크’ 첫 공개

삼성전자는 게임스컴 2023에서 한층 강화된 성능의 오디세이 아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오디세이 아크(G97NC) 55형은 기존 모델(G97NB) 대비 연결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3개의 HDMI 포트 외 1개의 DP 포트를 추가해 IT 기기 연결성을 높였고, KVM(Keyboard,

Video monitor, Mouse) 스위치 기능을 새로 탑재해 하나의 키보드·마우스로 최대 4대의 PC까지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오디세이 아크만의 새로운 멀티뷰 기능을 이용하면, 최대 4개의 외부기기 동시 입·출력이 가능해 게임 플레이와 동시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풍부한 멀티태스킹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오디세이 아크는 세로형 콕핏 모드(Cockpit Mode)가 가능한 게이밍 모니터로, 1000R 곡률의 풀 스케일 화면으로 게이밍 경험을 확장한다.

이 제품은 ‘플렉스 무브 스크린(Flex Move Screen)’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화면의 크기·비율·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어드벤처·시뮬레이션·RPG·FPS 등 게임 특성에 최적화된 모드 설정이 가능하다.

오디세이 아크 역시 ‘퀵터 미니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매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고화질로 즐길 수 있다. ▲4K UHD 해상도(3840x2160) ▲최대 165Hz 고주사율 ▲최대 1ms의 빠른 응답속도를 갖춰 게임 플레이에 몰입감을 더한다.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서비스인 ‘삼성 게이밍 허브’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는 별도 기기 연결이나 다운로드, 저장 공간의 할애 없이 클라우드 게임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오디세이 아크 신제품은 9월 중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빠른 휘산, 자동 꺼짐·꺼짐”... 모기향 ‘홈매트 맥스’ 출시

국내 가정용 살충제 브랜드 홈피파·홈매트는 장마 이후 늘어난 모기를 대비해 전자모기향 ‘홈매트 맥스(MAX)’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홈매트 맥스는 ‘홈매트 흡출루션’ 이후 5년만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전자모기향이다. 기존 제품보다 30% 빠른 휘산(액체 파위가 기체로 변해 흩어짐) 효과와 자동 꺼짐·꺼짐 예약 기능이 있는 ‘스마트 타이머’ 기능을 탑재했다. 전자모기향을 주로 밤 시간에 사용하는 이용 패턴을 고려해 미리 설정해둔 시간에 자동으로 작동·종료되도록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실내 환경과 상황에 따른 2단계 강

홈매트 흡출루션 이후 5년만의 신제품



도 조절 ▲빠르고 일정한 휘산 효과로 45일간 지속되는 살충효과 ▲슬림·모던한 디자인 ▲LED(발광다이오드) 무드 조명 ▲회전형 플러그 등 9가지 기능을 담았다. 홈매트 맥스는 향·보존제·산화방지제가 없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제로’, 모기가 싫어하는 제라늄 오일에 살충·소독·진정 효과가 있는 시더우드 오일이 함유된 ‘제라늄&허브향’, 속면에 도움을 주는 라벤더와 베르가못 향을 더한 ‘라벤더’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뉴스